第一千七百四十九號 [一]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SEOUL. 大正十四年六月十二日 [金曜日]

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排外運動의 將來

一

現下 中國의 排外運動은 國家至上主義의 偏見에서 一般的으로 他를 排斥하야 獨善其身하려는 運動이 아니오 資本帝國의 經濟的侵略에서 救出하려는 正當한 自衛運動인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어니와 이제 이 運動의 進行되는 現象을 一觀하면 學生이 中堅이 되고 있는 것이던지 不遠에 電光石火的으로 全國에 波及된 것이던지 己未年 朝鮮의 萬歲運動과 恰似한 곳이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勿論 엇더한 共通한 處地에서 同種類의 意識과 感情이 發作한 所以이지마는 이와 갓치 共通性이 만흔 것만큼 일즉 朝鮮의 萬歲運動이 朝鮮人에게 만흔 波動을 준 것과 갓치 今番의 中國의 排外運動도 持久的으로 中國人에게 잇서서 만흔 波動이 잇슬 것을 생각할 수 잇다

二

그리하고 中國의 排外運動은 매우 歷史가 오라지마는 從來의 運動은 純히 政治問題에서 發端이 되엿스되 今番 運動은 經濟問題가 多大한 것이오 從來의 運動과 갓지 아니한 것이 그 內容에 잇서 發點이 다른 關係로 그 外에 잇서 思想的으로 異彩가 잇는 것도 否定할 수 업는 事이니 이것을 엇던 國家의 宣傳으로 말미아마 外來的 浮氣로 看破하는 者도 업지 아니하지마는 中國의 現象으로 보아서 그러한 異彩가 잇는 것이 當然한 進化인 것을 認定치 아니한다 이는 너무도 中國의 事情에 暖昧한 觀察로 생각한다 엇지 그러냐 하면 中國은 事實上으로 半植民地이며 그 征服的 地位에 잇는 國家는 엇던 한 一國家만이 아니라 現世界列强이 總히 그러한 地位를 占하고 잇스니 이런 征服國家間에 非常한 競爭이 쉬지 아니하야 中國의 國家的 統一과 人文의 發達을 妨害할 뿐만 아니라 列强의 資本이 中國의 市場을 壟斷케 된 關係로 中國의 産業은 絶對로 發展할 수 업는 反面에 物價는 高騰하고 勞働賃金은 低歇하야 全的으로 中國人의 生活이 慘酷한 威脅을 當하고 잇는 것이다

三

다시 말하면 中國에 在한 列强의 征服이 一端의 基礎를 完成하야 그 目的인 經濟的 搾取를 盛히 하고 잇슴으로 이제 覺醒한 中國人은 이 經濟的 搾取에서 中國을 救出하려는 것이 이곳 今番의 中國排外運動의 出發點이니 이것은 勿論 中國排外運動의 一段 進步라 할 것이오 이와 同時에 이 運動의 根基는 從來의 그것과 가치 一時的 浮氣에서 始終치 아니하고 반다시 裡面으로 擴大되야 어느 目的地에까지 到達치 아니하면 決코 지쉬아니할 것이다 이제 運動報道되는 바에 依하면 沈息되는 곳도 업지 아니한 모양이오 또 侵略的 當局으로 말미아마 表面만은 全的으로 不遠에 鎭壓이 될 터이지마는 그와 갓치 外形上으로 鎭壓되는 것은 結局 火山의 噴火口를 大蓋으로 덥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四

그런데 中國의 排外運動에 對하야 或者는 中國을 發展식히려면 外國資本에 依賴치 아니할 수 업스니 排外運動은 中國의 損이라 하며 또 或者는 排外運動의 背後에 露西亞의 黑手가 잇스니 이는 말미아마 排外運動도 도리혀 中國의 統一을 妨害하는 것이라 하지마는 後者의 論旨에 對하야는 一考할 必要도 업고 前者의 外資輸入說에는 財政經濟가 破産에 瀕한 中國에 잇서서 一理가 업지 아니하되 이것은 輸入되는 外資가 中國人의 資本이 되게 된 뒤에 비로소 理由가 成立될 것이오 한갓 從來와 갓치 中國內에서 外國資本이 그대로 征服資本으로 活動하게 되면 이로 말미아마 中國의 産業은 勿論이오 經濟的으로 過去事實이 明々히 證據하는 바이니 이제 이러한 資本을 排斥하는 것이 엇지 中國의 損이랴 그런즉 中國의 排外運動은 國家的 名譽를 爲하야 當然한 것은 勿論이오 經濟的 利益을 爲하야서도 必然的으로 일어나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 그러한즉 今番의 排外運動은 經濟的 侵略이 中國에 잇서서 그 外國人의 主權이 그 前後로 ... 더구나 列强의 無理한 搾取가 틀림업시 잇슬 것이라 그러니까 時々로 잇슬 것이니 그것이 今番의 排外運動은 經濟的 思想的으로 異彩가 잇는 것만큼 現實的 收穫으로 從來運動에 比하야만 하더라도 그 國民의 生活問題의 中心이 되여 非礎하야 無限한 發展性이 잇는 것이니 이로 보면 今番의 排外運動은 中國을 救出하는 第一戰이 안일가 한다

日英條約破棄
國民大會서도 決議
◇會衆無慮二十萬人

國民大會參會社는 去五日 二十餘萬人에 達하고 天安門內는 立錐의 餘地가 업섯다 總指揮者는 李石曾, 副指揮者는 劉彥上海代表 陳殿風 以上의 決議를 可決하고 示威運動을 할 터인데 天氣가 俄然히 흐리고 豪雨가 沛然히 나려 會合으로 行列도 不得已 解散하게 되엿더라 (北京十日發)

一〇, 中國在住日英人에 一切食糧供給을 斷絶할 事
一, 英日의 條約破棄
二, 租外居留地撤回
三, 海關稅關稅收回
四, 日英總領事撤回
五, 領事裁判權撤廢
六, 殺人巡捕嚴罰
七, 一切의 損失賠償
八, 英日兩政府의 對中謝罪
九, 死亡者 遺族慰問費로 一人에 二萬元을 日英政府로부터 贈與할 事

青島學生 一齊休校

十餘校의 學生 一千餘名은 十日부터 休校하고 盛히 煽動을 하고 잇스나 取締가 嚴重한 外에는 일은 업스리라 觀測되더라 (青島十日發)

奉天學生通學不能
共産黨侵入으로 警戒嚴重

奉天學生의 排日運動에 對하야 奉天官憲은 張作霖氏가 不在함으로 困惑하고 잇는데 嚴重히 取締하면 반드시 그러나 學校를 閉鎖치 안코는 取締하다 城內의 日本小學校兒童의 通學할 수 업다고 父兄會로부터는 保護를 申請하엿스나 附屬地에는 多數의 共産黨員이 들어 왓스나 日中官憲의 取締가 嚴重함으로 危險할 必要는 업더라 (奉天十日發)

奉天學生示威

上海學生團은 電報로써 奉天學生에 約五百餘名의 師範學校 及 中學校에 對하야 示威運動을 이르켜라 하엿스나 其眞意는 單只 飛檄에 對하야 시의 嚴重한 行動을 取하엿는데 不過하다고 稱하는 데 事實인 듯하더라 (奉所着電)

罷業分子潛入
安東營口에

安東營口 等에도 罷業分子가 潛入하야 裏面으로 示威運動을 煽動한다는 風說이 잇스나 큰 일은 업슬 貌樣이더라 (北所着電)

山東一帶의 示威
濟南, 芝罘, 福州等地에 亘하야

上海方面의 罷業事件은 漸次 北上하야 山東省의 一部에 波及하엿다 則 當局側 消息에 依하면 濟南에서는 學生聯合會는 去七日에 協議會를 開하고 數千名의 學生은 隊伍를 지어 城內에서 示威運動을 하고 日英兩領事館의 門前에서 日英侵略排斥, 帝國主義打破를 絶叫하며 官憲의 警戒가 嚴重하야 暴行은 업섯다 芝罘의 學生 一千八百名은 集會를 開催하고 上海에서의 學生殺傷事件에 對하야 演說會를 開한 後에 市中示威를 하며 日英兩國主義에 宣戰布告하고 不平等條約을 取消하자는 宣傳紙를 撒布하엿다 福州學生團은 五日부터 一齊히 休校하고 廿日을 期하야 全市의 罷業을 計劃하려고 準備中이다 又學生團은 外人使用의 中國人에 對하야 罷業에 動하려고 갓든 領事館의 職日 爲하야 迎接하려고 갓든 領事館의 警官 及 部長은 其歸途人力車에 타려하엿스나 群衆에게 防...

南京에 不賣同盟

南京의 排外氣分은 城內보다도 城外가 激烈하야 九日 南京光華記官을 煽動의 形勢를 逐하고 市中은 不穩한 空氣이엿더라 (東京電)

扇子에도 排日文句

中國人은 事件이 이슬 쌔마다 排日을 宣傳하려는 風說이 잇는데 목하 扇子의 需要期에 入함으로 早速 本所에서는 顧客을 끌게 하는 意味와 그것을 排日宣傳具에 使用하려는 心算으로 扇子에 種々의 排日的 文句를 써서 目下 販賣中이더라 (奉天電)

上海實見記
猩風! 血雨!
悽慘한 이 光景
(一) 上海罷業의 第一日
上海特派員 發信

中國事情을 쓰라고 붓을 들 때마다 醜態와 惡評만 나오며 悲觀과 失望만 생기드니 이번에는 붓을 들 勇氣가 漸々 나오기 始作한다 이는 舊中國의 遺物인 官僚軍閥의 流氓式 行動이 아니오 新中國의 主公인 青年壯者의 新進的 奮鬪外 다름이다 正道를 主張하며 公理를 爲하야 暴逆을 詛呪하는 者이라면 누구든지 모다 이번 上海에서 突起한 猩風血雨에 對하야 同情을 表할 것이거든 呪咀 그 第一次의 慘禍가 생기든 翌日 正午에 余(本社記者)가 上海에 잇든 新聞記者團을 招宴하엿슴 쌔에 그 席上에서 特別히 朝鮮 新聞에서도 同情과 正義의 記事를 내기를 바란다는 모든 記者들의 付托을 밧엇섯다

◇

지난 五月 三十日에 된 第一次 慘劇에 對하야는 임의 그 由來와 經況을 말한 줄이 잇슴으로 이번에는 다만 그 後의 一般 形勢와 事件과 그 狀況을 말하고저 하는 것인데 이는 事々하 모다 價値가 잇스며 곳々마다 피눈물이 흐르는 情狀이다 지난 五月 三十一日에는 비가 왓섯다 그날 正午에 記者團과 모 名士들과 함께 將來가 자못 重大할 것을 사람마다 다 늣겻다고 하며 激昂하엿다 그리고 共産主義的 色彩가 잇다 하야 反共의 分子이라도 外國警察이 中國人에게 放銃하야 無辜의 學生과 工人이며 行路者가 慘殺을 當한 데에는 憤起치 아니할 사람이 업섯다 그런데 그날 下午 一時에 會董事會議室에 이고 門外 廣場에 ...

◇

그날은 國民黨의 主催로 外河南 ...의 會議로 잇다가 卒然히 總商會의 ... 一同이 ... 하다 民의 聯合會議를 主催하게 되엿다 ...

第二段의 罷業計劃

上海事件에 依하야 中國海員協會는 外國船舶乘組員의 全國的 大罷業을 斷行하려고 香港廣東各支部에 打電하엿다 그리고 廣東에 本部를 둔 全國總工會는 外人關係鐵道에도 總罷業을 하게 하려고 目下 ...

段執政煩惱

段執政은 上海事件 以來 매우 精神上 打擊을 바든 貌樣인바 過日 該事件의 對하야 政府에서 決定한 方針에 林長民氏를 中心으로 ...

天津排外
日益猛烈

天津學生의 排日英運動은 날로 惡化하고 南海大學長은 八日에 決死隊를 組織하야 各都市에서 宣傳紙를 配付하며 要所々々에서 路上演說을 할 事와 生徒 一名에 對하야 二圓의 後援金을 徵收할 事 等을 決議하고 各工場職工에게 罷業을 勸告하며 學生代表는 每日 商務總會에 나가서 罷業을 强要中이나 幹部는 應하지 아니하고 學生의 要求가 激烈함으로 中國에서는 半旗를 揭하야 上海事件에 哀悼의 意를 表하엿더라 (天津十日發)

青年憤慨
◇與死盟誓◇

비로 因하야 示威運動은 大部隊는 解散되엿스나 北京大學生 女子師範學生 등은 市中으로 行列을 繼續하고 執政府에 赴하야 決議의 意를 陳述하엿다 此日 天安門에서 一靑年이 上海事件으로 殺害된 것을 憤慨하야 斷指하고 死를 盟誓하야 血書하고 너무 悲憤한 外에 卒倒하엿더라 (北京十日發)

會場에 殺到
高喊一聲에

國民大會라 稱하고 南開에 集合한 學生 勞働者 商店人 等 十餘萬人은 電柱 人家의 屋壁에 日英帝國排擊 下 등을 揭載하고 公使의 訪問을 要求하고 여러가지 不正義를 爲하야 事件을 迅速히 解決하라고 高喊을 하엿더라 (北京九日發)

事件을 聯盟에 附議하라
林長民氏 建言…政府는 考慮

林長民氏는 執政府에 對하야 上海事件을 國際裁判에 附하자고 建言하엿다 그리고 外交團은 上海事件의 複雜難解한 것과 中國의 反感을 招來할 것을 恐懼하고 卒告하야 同事件에 對하야 開言치 아니하는 狀態에 在하나 林氏의 意見에 對하야 贊成하는 듯하다 그러나 執政府에는 萬若 國際裁判에 附하면 結局 不得要領을 理葬될 것을 恐懼하는 者도 잇슴으로 果然 事件이 聯盟에 附議될지 疑問이더라 (東京電)

白軍赤化對策

東三省에 잇는 白軍系露人은 勞農政府가 東三省에 漸次 赤化의 手를 버리려 함으로 共對抗策을 講究하라고 奉天城內에 幹部會를 開하엿더라 (奉天十日發)

女學生五萬모다 退學
杭州排日英運動의 餘波

杭州의 商務總會는 日英貨販賣禁止策으로 各商店의 日英貨에 封印하고 十二日부터 徹底的 經濟絶交를 計劃하고 잇다 그리고 此地의 排日英熱으로 畢竟 英國聖書教會經營의 女學校生徒 五萬名은 全部 退學하고 學校는 閉鎖하게 되엿더라 (北京十日發)

日中親善의 主眼
日政府의 態度

青島上海其他 中國各地에서 勃發한 排外運動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關係列國과 協調한 後 在留日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야 臨機의 措置로 軍艦四隻을 急派하고 各其警戒의 任에 當케 하엿스나 日本政府로서는 此際 可及的으로 誤解의 一掃에 努力하고 排外運動이 鎭定되는 대로 急速히 軍艦을 撤退케 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더라 (東京電)

廣東市大混亂

廣東政府軍의 飛行機는 九日 夜에 廣東市에 爆彈을 投下하야 一時 人心이 恟々하여 市民은 食料品外지에 不安을 感하야 日人은 軍隊를 派하야 ... 外에서는 日常의 食料品 及 水等을 買却치 아니함으로 日人은 軍隊와 나라 食料品外지에 不安을 感하게 되엿더라 (南京十日發)

上海事件眞相
針小棒大

日本政友會로부터 派遣한 見玉代議士는 九日 上海에 到着하고 即時 各新聞社 及 關係者를 訪問하고 排外運動의 眞相을 調査한 後 本部에 打電하되 上海로부터 發하는 報道는 針小棒大且 株式取引者의 誇大한 報告로 잇서서 日中國交上 매우 寒心한 일이라고 報告하엿더라 (東京電)

總攻擊을 行할 터임으로 午後六時 以後는 生命財産을 保護할 수 업스니 安全한 場所로 避難하여 달라는 宣傳紙를 空中으로부터 撒布하얏는데 이 外에 城內 一帶는 避難者로 因하야 大混亂을 呈하고 不安한 空氣에 充滿하엿더라 (廣東九日發)

英佛의 決定的協調
保障條約의 回答文

獨逸의 保障條約提案에 對한 回答에 關하야 英外相과 佛外相의 交付한 回答은 英佛의 決定的 協調를 示하고 잇다 그리고 只今 英佛間에는 此 問題에 關하야 아직 正式決定은 업스나 完全한 協調가 成立되엿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英國은 벨사이유條約에 依하야 決定된 라인 國境에 關하야 獨逸의 萬若 라인 地帶條項에 違反하는 行動을 할 때에는 英國은 此로써 開戰의 原因이라고 思惟할 것이다 又 獨逸의 東部國境에 關하야는 英國은 벨사이유條約의 義務條項에 對하야 非常한 表明을 하는 同時에 佛國에 對하야는 萬若 聯合國의 一國이 第三國의 攻擊을 受한 時는 聯合國의 安全保障을 爲하야 戰爭地帶와 同樣으로 라인 流域地帶를 利用할 權限을 附與할 것이라 云 그리고 獨逸의 國際聯盟加入은 保障條約의 實施를 條件으로 할 것이라고 보아 外相은 記者團에 對하야 保障條約에 依하야 獨逸과의 協調를 하게 될 機會는 만흔 터이며 余는 此를 熱望한다고 하엿더라 (倫敦九日發)

佛米請算否認
財政長官答辯

佛國下院에서 財政長官 「카이요」 氏에게 對하야 政府는 米國 「쿨간」 商會에서 一億弗 借款中 伊의 多額의 引出을 하엿다는 風說이 잇는데 事實이냐고 質問한 것에 對하야 「카이요」 氏는 크게 此 事實을 否認하고 法保證以外에는 一弗이라도 손을 안 대엿다고 述하엿더라 (巴里九日發)

白耳義新閣員

「브렌」 伯爵은 左와 如히 新內閣의 閣員表를 白耳義皇帝에 捧呈하엿더라 (블드九日發)

總理兼外務 반델벨드
大藏 장센
殖民 치보
農商務 데리텔켄케
司法 아스트텐
學務 이만스
內務 아볼
工務 워타스
鐵道 안시루스
以上 社會黨

兩軍交戰繼續

日本海軍省公表 廣東에 잇는 雲南軍 及 廣西北方面의 廣東軍은 서로 對峙하고 交戰하고 잇는데 居留民의 住宅 及 主要한 商館은 아모 危險이 업더라 (東京電)

日英排斥運動經過

日本外務省着電 上海와 各地의 日英排斥示威運動經過는 如左하더라 (東京電)

五, 芝罘에서도 八日에 約 一千八百의 學生이 一切의 條約을 廢棄하여라 하는 宣傳紙를 撒布하고 示威運動을 하엿다

◇東亞漫畫 投稿歡迎 漫畫部

今後의 海外發展策은 무엇?

一, 上海租界는 中國商店이 開店하고 잇는 以外에 기외 狀態로 回復하엿다
二, 罷業은 漸次 擴大할 것 가치 보이나 眞面에는 服從하는 者가 만아 라 學生 勞働者의 示威運動도 散想과 갓흔 聯盟이 업다
三, 南京에서는 學生團의 寄附金을 强要하고 日本商店使用의 中國人에게 罷業勸誘의 容貌를 迫함을 當함 ...
三, 九江에서도 三百名의 學生과 三百名의 勞働者가 排外示威運動을 하엿스나 何等 暴行은 업다
四, 濟南에서도 日英帝國主義打破를 絶叫하얏스나 警官의 取締로 何事도 업섯다

北京雪辱大會
參加人員이 十萬
女學生은 罷業資金募集

學生聯合會와 教員後援各團體의 自主的 聯合으로 北京雪辱大會라 稱하고 行하엿다 每日 學生은 十萬名에 勞働者의 商人 約十萬人이라 稱하는데 天津軍國民 軍의 一部도 秩序維持의 目的으로 參加하고 參加者는 勿論 通行者에 對하야는 上海 日英領事撤廢 日英貨排斥 經濟絶交 日英帝國主義打破를 主唱하며 行列을 하엿다 그리고 十五日 日英을 侮辱하여 印刷한 죠희를 一枚 二十錢 以上에 賣却하고 人力車는 다 宣傳旗를 세우고 도라다니더라 (北京十日發)

政友福岡大會

日本政友會 福岡支部大會는 十日 午前十時 福岡市 博多劇場에서 開催되엿는데 當員 三千餘名이 出席하고 本部의 田中, 高橋 新舊總裁 外 所屬代議士도 參列하야 宣言決議를 可決하고 大演說會에 入하야 兩總裁의 演說이 잇슨 後 午後五時에 散會하엿더라 (福岡電)

北樺太 利權會社設立

北樺太 利權會社設立에 對하야는 本日 首相의 提案과 石油 石炭 二重役 委員十數名의 會議에서 如左히 決定하엿더라

一, 本會社의 設立은 絶對主義에 依할 事
一, 株式은 記名式으로 할 事
一, 會社의 定款變更과 合併 等은 總會의 認可를 要할 事
一, 政府는 臨時 必要한 事項에 關한 規定을 할 事
一, 普通會社의 定數와 同一

一, 石油會社는 北樺太石油株式會社라 稱하고 資金은 一千萬圓으로 함 (但 一株 五十圓으로 一回 拂込 二十圓)
一, 石炭會社는 北樺太礦業株式會社라 稱하고 資本金 一千萬圓 一株 五十圓 一回拂込 三十圓
代表者는 近々 渡露하야 蘇聯과 契約한 後 總會를 開할 터이더라 (東京電)

定例閣議
決定事項

九日 定例閣議는 午前十時부터 永田町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加藤首相 以下 各大臣 出席 (小川法相 野田商相은 欠席) 外相은 支那各地의 騷動 及 對中外交 其他에 對하야 報告하고 海相은 中國時局에 對한 報告가 잇슨 後 當面의 通常政務를 協議하고 左의 諸件을 決定하고 正午 散會하엿다

一, 關東遞信諸官制中 改正의 件
一, 吳海軍製鋼部의 風害로 破損된 個所 修理費로 第二豫備金 三萬圓 支出의 件
一, 國際聯盟日 土帰人 賀...

決議

一, 外交刷新 國民經濟對策의 樹立을 期함
一, 地方自治制度를 改善하야 獨立財源의 確立을 期함
一, 稅制 行政 兩制度의 根本的 刷新을 期함
一, 商工貿易의 擴張을 計하고 農業 及 漁業의 振興을 期함
一, 教育制度의 改善을 期함
一, 社會政策의 確立을 期함

消息

◇高敬賦氏 (咸興商業會長) 外三氏는 京銀行 支店 運動次로 上京하엿다가 今日 歸鄕한다고
◇金炳瑞氏 (本社咸興支局長) 今午後十一時車에 歸鄕한다더라

橫說竪說

◇中國黑龍의 火焰은, 그 中心이 北京에 옴기엿다 한다, 半島의 鴨綠江을 隔하고 잇는, 南北의 天地도, 對岸의 火로만, 보기 어려운 일.
◇米國某親日家는, 良家處女를 日本에 派遣하야, 兩國의 親善을 圖하려 한다든가, 戀愛에는 國境업다는 眞理를 把持한 것은 說構!
◇京城鍾路署長村山某는, 特히 關鮮은, 思想的으로, 不穩이라고, 北鮮은, 不穩한 줄 아는가?

憲政政務調査

十日의 日本憲政會 政務調査會는 選擧訴訟에 關한 大審院의 態度에 對하야 濱口議長으로부터의 意見의 報告를 한 後 左의 決議를 하고 法相에게 慎重하게 考究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繼續 北其他에 關하야 協議하고 四時半에 散會하엿더라 (東京電)

決議

施行法外의 選擧에 關한 民刑事의 中撤論 ... 未決되지 아니하면 國民의 疑惑을 招起하고 司法權의 威信을 失墜케 하는 것을 認定함

中等教員檢定試驗

日本文部省의 第四十二回 中等教員檢定本試驗은 七月 一日부터 同八日外지 施行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日의 官報로 公布되는데 出願者數는 約八千名이라더라 (東京電)

滿鐵株主總會

滿鐵은 來二十日 定期總會를 열고 配當 一割 其他 事件을 附議하고 또 八千萬圓 假定의 社債 發行 承認을 求할 터이라더라 (東京十日發)

新政幹事會

日本의 新政俱樂部 幹事會는 十日 午前 十時 院內務室에 開會하고 排外運動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結局 各派와 協調하기로 政府에 對하야 ... 人事 其他 ...

京城府豫算減

大正十四年度 京城府 戶別稅賦課額에 對하야는 九日 京城府協議會에서 原案을 修正하야 十一日 午後 再開할 터인데 그 總額은 十二萬八千二百三十七圓으로 前年度의 十二萬六千七百六圓보다 約 二千四百三十九圓이 減少하엿다 ...

百藥의 王인 (四)

한자의 「人蔘후로-핀」은 日本政府의 商標登錄한 家庭에 恒用하실 唯一의 補强飲料온대 朝鮮人蔘의 精氣를 爲君하고 其外 補陰補陽의 偉大한 効力을 가진 「次亞燐酸鹽」 及 「갈슘」 等을 配合하야 服用에 最適케 香味를 調和한 것임으로 누구든지 쓰기 쉽고 特히 病弱과 老衰로 苦生하시는 사람이든지 營養不足과 腎氣不足한 사람은 勿論 誰某하고 一般으로 虛弱한 老幼男女의 게 업지 못할 조혼 藥임니다

「人蔘후로-핀」을 드시요!!

市內는 配達함 (一瓶 一圓 拾錢)
遠地는 郵送함 (特히 一瓶 一圓 拾錢)

京城長谷川町 朝鮮製藥合資會社

韓山白苧 出來

京城南大門通四丁目八 三中商會

大賣出 韓山白苧 (京苧白)
一等品 一疋 拾四圓
二等品 一疋 拾貳圓
三等品 一疋 九圓
一疋 周衣次 一件

B 染料原料專賣
京城花園町九七 東華洋行
原料染料都散賣店募集

資本金 參千萬圓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有賀光豊

新聞定價 一個月 六拾錢 一個年 六圓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各地穀物 十一日前場

頻々한中國鹽務局員의暴行
朝鮮船夫二名 鴨江中에投入
한명은사라나고한명은불명 죽엇는가살앗는가고의생사
領事館警官隊와市街戰

지난구일오후십일시경에안동현강안통(安東縣江岸通)에서중국염무국원(中國鹽務局員)삼십여명이배를타고 압록강류(鴨綠江上流)로 다라나며안동현령사관경찰서경관대와총화(銃火)를상교(相交)하야 일대격전이 이러낫섯는데 결국시가에까지드러가서 크게작흥하야 중국인시가에는 일시 큰시 상태를이루어상인들은 상뎜문을 닷치고 통행인 까지 헌하 첫섯다 그원인은 지난팔일 오후구시경에 신의주로부터조선사람 선부두명이 배를타고안동현으로 건너오는데 염무국원은 소금밀수업자라고 함부로난타하고 두사람을 강물에 집어너허 한사람은헤염처서 살아나왓스나 한사람은 아즉행위불명이 된일이잇섯고 또구일오후십시반경에 안동현 일번통오뎡목에사는 김명환(金明煥) 최직현(崔直賢)두사람이 뷔인배를타고건너가서 강변에 배를매고 하륙하엿는데 염무국원삼십여명이 소금밀수업자라고 권두사람을 난타한후 두사람을 배에 달고 배를 저어 달려갈새로 강안통출소순사가 현장에 달려가서 배를 도로 쌔아섯는데 염무국원은 분로하야 총을 란발함으로 염무국원의 란환이 이강안통의출소고교(高橋)순사의코마루를 스치어 부상을당하얏슴으로 급보를드른령사관경찰서에서는 십여명의 경관이금히달녀가서권총와가치격권총이 큰쳣든것이라더라

또한명拉去
그역생사불명

어데에감금하엿는지 봔항과갓치령사관경관대가도라온뒤에 염무국원은 다시그곳에 놀일이잇서갓던 조선인 리인영(李仁榮)을소금밀수업자라고잡아서무수난타하고결박을하야마차를태여가지고어듸로갓다가감금을한모양이라는바금번사건에 대하야 령사관에서는 엄중한항의를뎨출하리라더라(안동뎐)

訓練院工事場 人夫二名重傷
훈련원운동장공사중에 한명은독위한명은중상
關係者事實隱弊

경성부에서 설시하는 훈련원(訓練)운동장공사장에서수일전에언덕을파내든조선사람인부두명이 언덕을 파거 내이는 공사를하든중 돌덩어리가 문허저한명은죽고한명은다리가 부러저중상을당한일이잇섯는데 이일은 간접으로경성부에 관계가되는 일이며 또두공던하여혼자공사에이러한불상사가잇다는것은 자미없는일이라하야 경찰서에까지비밀을지희여 지금까지 그공사장사자외에는 눈구터지모르게하야 암암리에 무더버리려하엿던것인데 지난나흔날에 나려난 사건이다 그공사중에서 데일위험한 언덕을파거내는 공사를 마튼십장윤문재(尹文在)의뎨일공사안에서 가즈러너서서 파거내든 최상복(崔相福)(七)과김경원(金敬元)(五)은동사에만등하여잇슬때에 갑작이돌덩어리와 흙이문허저최상복은 다리가부러지고 김경원은머리와가티 신이홈파돌무더이에깔리여 거의절명할지경에니르런것을 세부란스 병원에 보내엿다

治療費도不給

이두사람이중상하야 세부란스병원에 입원하야 지금까지 치료중인데 공사청부인우야조(宇野組)에서는자기는 관계업고 상한사람의 잘못이라고 치료비를내지안음으로 그사람들이 장차병이나하일을 다시하게되면 벌어갈기로하고치료중이더라

場所最險
장소변경은간청 감독은듯지안어

구역십여명윤문재가 마터일하는 데일위험한곳임으로 대하야 소를옴겨달라고하엿것스나 도모지가려주지안엇는데 그리하그일을하는사람 노을취옷치못하야 냥일을 하다가 그와가튼참화를 당하고는 다시감독에게 당소를 밧꾸어달나고 교섭을하엿스나 들어주지안음으로 윤문재조오십명은 그날로 일을고만두고각각 헤여젓다더라

中國人夫는二倍
조선인인부의삼배가되여 공사청부자는사실을은닉

이일이업서도 갓득이나 요새에는중국인 인부를조선사람인부보다 만히사용한다하야 일반여론이 놉하가는중에 이번훈련원공사에서 중국사람에게는 모래로된산을 파게하고 조선인에게는위험한곳을 주어몃번이나청하엿스되종내당소를밧꾸어주지안타가 그러케두사람의사상을 내게하엿슴으로 경성부 당국에서도 책임을 깁히하야 은근히중국인로동자에 대한제한을 하려고하는중이며 그후에 경성부의주의에의하야 그공사를 마튼우야조(宇野組)에서도 그일이잇슨후 조선인인부에게 위험공사를 면케하여엿다는데 지금그공사당에서사용하는 인부총수는 확실한수는비밀에부침으로자세치못하나매일평균 이백명이오 그중에 조선인부는 경성부의 발표는삼할 우야조의 공포에는오할이라하나 그실조사한바에 의하면작일현재가 중국인은 일백삼십명가량이오 조선인은 불과사십여명인즉 경성부에서 공사장활청부자에게 대하야조선사람을 중국인인부 삼칠천보다 세상을속이는수단에 불과하고 감독관령에잇다는 경성부에서는 매일직업소개소에만 쇄도하야 구직하는백여명의 무직자가 잇슴에도 강구차안코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인을 리롭게하는터이다

十五時間勞働
삭된돈을초과ㅎ십전

중국인이다수로 조선인은 불과명분의불과하나 조선인의 공전은훨씬마차를 파서나르는데사로오리 중국인은 오원이라는가 부지오 하는데 그들의로동시간은 하로에 열다섯 시간이라 게의업는 로동시간이더라

李王妃殿下
◇美展에行啓

리왕비뎐하(李王妃殿下)께옵서는십이일 오후두시에 창덕궁을나옵시와 시내영락뎡(永樂町)조선미술뎐람회(美術展覽會)를태람하옵신후 동삼시경에환가하옵신다고배뎡되엿더라

中國人制限은國際問題
이번사건은 『청부인의책임』

이에대하야 경성부 토목과당암성(岩城)기사는말하되 본래경성부 공사를 청부하는사람과는 상부의취지로 보통인부는삼할이라고 케한을하고 셕공가튼권문공은 공사의사정에 따라무케한으로 하엿습니다 그리나이케한이 국케문데에 관게되는것임으로케한한다든지안한다는것은 실상어려운일입니다 우리는그러케 주의를 가칙부인에게하여두엇슴으로그런줄만알고 잇섯습니다 그리고 이번사상사건은우리에게는 직접관계가 업슴니다만은 배우불상사 임으로 세상에공포되지안음을바라고잇섯슴니다 요새에니르러 중국인로아마상부예서어후부터는이할이내로케한하게될듯합니다

金鑛에武裝團侵入
금륙전중을가지고도라가

평북귀성군 련마면신흥동 신흥금광사무소(平北龜城郡天摩面信昌洞信昌金鑛事務所)에지난칠일 오전한시경에무장단 세사람이침입하야 그사무소안에 자고잇든 사무원들을위협하고금(金)륙권중을가지고가며 후일 다시올터이니 현금천원만 준비하여두라는말을 남기고 잣최를 감추엇다더라(신시)

二名被殺
초산의무장단 경관대와충돌되야

초산서(楚山署)에서는지난구일오전중 초산군고면문덕동(楚山郡古面文德洞)에무장단구명이잠복한것을 탐지하고 곳목촌경부보(木村警部補)이하십팔명의 수색반은 이대로분하야 잠복되의약십오뎡의 디점에서 총화를 상교한결과 무장단이명을 총살하고 일명은체포후 게속추적중이라는데 압수품은 로국식권총한개와 보총권총한개와 탄환일백팔십구발이라더라(경무국발표)

軍資金請求
귀성의무장단 주인이업서목뎍부달

평북귀성군사기면 송백동(平北龜城郡沙器面松栢洞)부호 박창린(朴昌麟)의집에 지난팔일오전세시경에 무장단네사람이 드러가서 군자금을 강청하엿스나 주인박창린은 그때집에 잇지아니하고 그의부친만 잇섯슴으로 후일 다시오겟다고 말하고 아모말업시 가버렷다더라(신시)

學生을또亂打
陽村公普日訓導
어린학생을유도법으로싸려 학생은오좀을싸고기절하여 畢竟五年生同盟休校

지난삼일 오후세시경에 충남론산군 양촌공립보통학교(忠南論山郡陽村公立普通學校)오학년담임훈도송미수웅(松尾秀雄)(二五)씨는 자긔학년의학생들이하학한뒤에 교실소제하는것을 살피다가 소제하든생도 리중식(李仲植)(五)이라는생도가교실에노여잇는풍금(風琴)에다가배를걸치고잇는것을보고아모말도업시 모필미를잡아서 자비트리라고하매 학생이항거하야 자버지지아니 하엿드니 고만정을내여 평시부터 자랑하든 유도(柔道)로어린학생을 교실마루 바닥에 메여첫더니 그학생은 오좀을 싸고 기절하엿슴으로 그학년학생들은 평시부터 그선생에게 가지고잇든 불평이 폭발되야 잇흔날부터 동맹휴학을 하엿는데그자세한사실을 듯건대 송미훈도는 그뒤부터 교수에성의가업고 혹학생들이 조곰만실수하면함부로 뚜려주는것이 상습임으로 그선생에게 교수를밧지안켓다는것이라더라(강경)

學父兄大憤慨
지금그대책을강구중

이사실에대하야 일반학부형사이에도 여러가지로 의론이분분하든바 밈을오권히 커리하기위하야 각기자데들을불러서 사실은 분개할일이나 학생으로서넘우강경히하는것은 될수업스니 공부를 계속하면 부형들이학교당국에 교섭하야 일반요구를 어저주도록하겟다고 일러서 흑일오후에는 데조한시간을하엿든바 학교당국에서는 이를도화선으로 평소부 일동은 ...

五萬住民의生途
파란곡절을격거온지금에 삼분의두분은일본인에게
◇順川國有林野貸付問題

평안남도순천군(平南順川郡)에이르러서는 엇더한 관계인지 평안남도순천군 일뎐(德川)청산(靑山)봉명(鳳鳴)등 네면에, 쇄치여잇는 팔천뎡보의 국유림야에 그부근에 거주하는 조선사람오만여명의 생명줄이 되여잇는 이산림은 곳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엇다 ... 삼분의이는 중촌조(中村組)... 이러한 관계로 이 문제는 삼분의일은 주민들에게 ...

大邱에서도中國人
誘女魔窟發見
조선녀자다섯명이잇는것을 대구서에서발견하고조사중

지난십일 대부구(大邱)서청일경에서는 대구부대명동(大邱府大明洞)에사는 중국인 섭봉림(葉鳳林)이라는 중국인의집에 조선녀자가 잇다는 정보를 듯고 ... 김문옥(金文玉)의딸순덕(順德)... 손경해(孫鏡海)... 한권운(韓權運) ... 알고보니 중국인의 엇더한 수단에 속아서 ... (대구)

東門署巡查瀆職
순사시혐합격시혀준다고 현금십원을멀정하게편취

요사이 시내동대문(東大門)경찰서에서는 동서원중에 부정한 행동을한일이 드러나서 동서에서는 극비밀리에 사건의내용을 조사중이라는데 그사건의 내용은 시내광희뎡(光熙町)일뎡목에잇는 윤모(尹某)(ㅇ)라는사람이 지난오월에 순사지원을하여 시험합격하려고하엿스나 어렵게되어 대문서(東大門署)에재근하는 순사모가 윤모를보고 자기가 도워주겟다고 현금십원을 ...

南川江架橋와 堤防問題로陳情
비명이상경하야

경상남도밀양군(慶南密陽郡)에서는 그곳남천강(南川江)의가교(架橋)와밋 뎨방(堤防)문데로지난오월이십삼일에 군민대회를개최하얏든바 위원이 ... 도위생과당국의 도청(道廳生課長)과 및 등경찰관련습소장(藤井警察官練習所長)을 ...

不正本町郵所員

시내본정(本町)의 우편소원 일본인 소림(小林)... 이 ...

處女를拉致監禁
약혼한처녀가배신한다고 폭행을보내가지로잡아가

엄마면에 봉산군초와면(鳳山郡楚臥面) 녀자 ...

人夫賃金橫領

범인은통산서에 ... 대판(大阪)출생으로주소가 ... 림비태랑(林裴太郎)...

貞明女校盟休
선생의폭행으로

작십일일부터컨라남도목포뎡명녀학교(全羅南道木浦貞明女校)생도사백여명은 교사량지윤(梁志潤)의 백척과의파면을 요구하고 동맹휴학을 ...

四百餘名大混戰
일본복강현에서조선로동자 일본로동자와편싸움을시작
死傷多數ㅣ事態險惡

일본복강현천소군 일교촌(福岡縣川沼郡日橋村)에잇는 동경면이편케식회사발뎐소(東京電燈株式會社電所)공사에 종사하는조선로동자사백명은 일본로동자와 ... (복도뎐)

粗惡한防水布로 四十萬圓橫利

... 과관일본명고옥 신영뎡서(名古屋新榮町署)에서 검거한죄일상 ...

日本에朝鮮公娼
경시텽에서는임의내명

일본에 조선인공창을허할지아니할지는 근래차차증가하는 경향으로 ... (동경뎐보)

惡地主의改惡
무리한소작계약방다 경찰의설유듯고

전라남도순천군 황뎐면대치리(全南順天郡黃田面大峙里) ... 박승린(朴勝麟)... (순텬)

貸付未墾地管理人 高價로作權放賣
한편보에대하야오식원식 일반의시비가자못놉핫다

경상남도밀양군 하남면수산리 ... 소작권을 ...

青總에救饑金

각처로부터드러온 ...

張德昌氏 飛機墮落
한강연안에

◇휴지통◇ ◆전라북도장수군장수면장수리(長水郡長水面長水里)에거주하는 일본인좌등영일(佐藤榮一)이란자는 ...

蚊帳

蚊帳은同心組合員에게

◎日本網紗蚊帳部
◎西洋網紗蚊帳部
◎細網紗蚊帳部
◎靑布蚊帳部
◎生絹蚊帳部
◎但十件以上注文에는五分割引함(鮮尺은木尺으로함)
◎地方注文에는代金引換迅速輸送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十二番地
蚊帳專門 南昌商店 主 金汝完

鳳文館

京城府寬勳洞二番地 振替京城四四五番

歐洲大戰起源略史
少年讀本
東西洋菓子製造法全
歐米偉人列傳
模範入學準備書
全科正解
半島少年

◇四海同業者愛讀者의大福音◇

京城驛前 中興旅館
主 韓鎭澄

同順泰

解雇廣告

朝鮮劇場

專門醫院
京城黃金町一丁目一九番地
皮膚病 花柳病 特別診療部
院長 李寬植

大陸고무

太西館
京城府公平洞七十八番地
西洋料理

眼鏡과金屬
宮川大學堂本店

專賣局의毒牙에
二千餘名은生道를잃어버리고 流離가續出하는慘狀을일우어
全州山間三面의窮狀

全州郡의山間地帶인九耳,上關,所陽等三個面은自來煙草所產地로有名하든바煙草專賣局이생긴後에도前記三面은指定耕作地로되엿는데其中九耳面은昨年度부터指定耕作을取消한外탓에煙草耕作을專業으로하든住民의生計는去益極狀을呈하야 男負女戴하고各方面으로流離한者가于今五十餘戶에達하엿다고한다는데이제그同郡同事情을드른즉旣往(專賣局되기前)에는面內住民一千五百餘戶中六百餘戶即五分之二가煙草耕作을專業으로하야每年總收入額이一萬四五千圓에達하야生活을扶持하든바專賣局이생긴後耕作認可된者가四百戶以內인同時에普通時價十圓자리煙草를專賣局에서四圓內外의廉價로買入하는故로一般的으로收入이激減된것은勿論이요이와가튼廉價價格으로는耕作費도充當할수업는故로一般耕作者는專賣局의苛酷한取締下에서도不顧後患하고密賣를盛行하야專賣局의所得이減少됨으로昨年度부터五六百戶二千餘名의生活脈을어더버리고가치漸次流離의慘狀을呈하는데前記와가치耕作을同意코자希望하나專賣局에서는全然不顧하는態度를取함으로一般의怨聲이藉々하다고(全州)

百八十二人에
靑川面의救饑

旣報와如히去二日에忠北槐山郡靑川面長朱文用氏와有志東山進氏外二十二人의主催와本社米院分局後援으로救饑會를組織하고그即席에서一百五十圓의同情金을어더粟十四俵를購入하야同面內極貧民一百八十二人에게去七日에分配하엿는바左記諸氏의義捐金을어더粟十四俵를購入하야同面內極貧民一百八十二人에게去七日에分配하엿다고(米院)

福原寄市氏十圓 金泰圭氏六圓 矢野收治、朴東植、金東祿、盧錫駿、岡田四郎氏各五圓 盧秉斗四圓 沈禹燮、李敦智、崔基根、洪在珪、李丙圭、李京珪、萬弘植、柳漢齊、若木要藏氏各三圓 申九雨、柳浚馨、朴東範、崔辰明、朴聖本、大野岩吉、金炳煥、金敎煥各二圓 閔錫會一圓五十錢 沈在周外十七人各一圓

겨우一條生路
槐山郡의救饑

忠北槐山郡廳에서는郡內饑饉救濟策을講究中이든바昨年旱災의餘波가尤甚한十勿佛頂長延三面의極貧者百六十戶에서는國庫金補助로二百三十三圓은滿洲粟을購入하야一人에九日分式八十戶에分配하고地方費補助로二百十圓은粟以機를購入하야一戶一斗式남어지八十戶에分與하엿슴으로假死線上에서헤매이든貧民은겨우生路를어덧다고(槐山)

永川郡에救饑
五千餘人에게

慶北永川郡廳과警察署가協力하야郡內財產家와有志에게義捐金을勸하야千四百七十五圓五十錢을募集하고赤十字로부터八百七十二圓의寄附를바든것을合하야粟을購入하야지난五六兩日間永川面外十三面에貧困者五千百三十名에게粟四百四十二石五斗를配給하엿다고(大邱)

第二回救饑
粟米를分配
四千七百二十四人에게

全南潭陽郡에서는昨年旱害로今春生活困難에빠진貧民들에게第一回粟米를分配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다시各面極貧者總戶數一千二百四十六戶에게地方補助費로粟米五十四石二十六升을配給하엿다는바被救助人數及配給粟은左와갓다더라(潭陽)

面名	被救助人數	粟配給升
九岩	九九	一一七〇
月山	二〇六	二四二〇
金城	二四二	二八六〇
龍	二七九	三三五〇
武	二一二	三五〇〇
貞	二八五	三三六〇
昌平	六六六	七八六〇
古西	一九三	二二八〇
大德	三五五	二七〇〇
水北	一一二二	一二三四〇
大田	一〇六五	一二五七〇
計	四七二四	五四二六〇

建築繼續決議
中止되엿든靑年會館
里民大會開催

咸南新浦六臺靑年會의發起로去五日에里民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其內容을들으면六臺靑年會는五年前創立以來로여러가지事業을經營하야오든中에드第一急先務인無産兒童과不就學兒童의敎育機關으로六臺講習所를設立하야敎授하야오다가講舍가狹隘하야昨年夏期에該靑年會의努力으로會館及講舍六間新建築에着手하얏스나 財政恐慌으로 不得已中止하고잇든바다시繼續하기로하야兩里々民大會를開한것이며그結果有志父老들의積極的後援下에다시着手하기로左와如히決議하엿다고(豐武)

一、會館及講舍建築을更히着手할것
一、建築中止時資借金과新築費를里民이負擔할것
一、昨年建築時未收된寄附金을靑年會에서收金할것
一、現在新築費捐金募集에里民은積極的으로後援할것

勞農靑年會
沼壽에서組織

忠北槐山郡沼壽面沼壽里에서는同里居金鎬應氏外四人의發起로沼壽勞農靑年會를組織하기로하고來二十二日에創立總會를開하기로決定하엿다고(槐山)

大邱信用組合
不日間에開業

旣報한大邱信用組合은그동안口의公募를맛치고八日午後三時創立總會를開하고組合約款承認,役員選擧를行하엿다는데評議員은如左하며總組合員은三百十九名이라는바不日間開業하리라고(大邱)

▲評議員張稷相、徐相日、李相岳、崔浣外八人▲監事池二洪、金潤健▲理事李璟震、松本、佐藤二氏

元山陳列分館

咸南道物產陳列館의分館을오는七月十日부터日人村仲町公會堂에開館할터이라는바同陳列館에商品其他特產物의陳列을希望코저하는이는此際至急히元山府廳內務課에申込함이可하다하며陳列의物品은元山特有의物產에限한다고(元山)

金堤旱災去益甚
모자리물도업서、이무슨災殃!

金堤地方은봄부터旱魃이너무오래繼續됨으로모자리가말들은外에井水가涸渴되야가며各堤堰이나洑水도涸渴되야간다함은累報한바와갓거니와此에對한慘憺한數個堤堰은一滴의水도업시涸渴되야龜裂되야잇스며其他各面의堤堰도그갓든現象인데新坪洑水도벌서涸渴되엿슴으로말들은모자리에대일물이업서農家에서들은크게不安한가운데잇스며벌서種은지나가고夏至가不遠한今日에비가오지아니함으로農家에서들은날마다一點의白雲도업는蒼々한空中만바라보고비오기를긔달인다고(金堤)

다시千圓寄附
學校期成과金氏特志

慶南晨橋市學校期成에對하야는旣報한바어니와同期成會에서는附來寄附募集에努力中이든바古梨里金且俊氏는氏의慣常金百五十圓八十錢을支出한外에다시去五月三十日에一千圓을寄附하엿슴으로一般은氏의特志를稱頌不已한다고(晨橋)

咸南普校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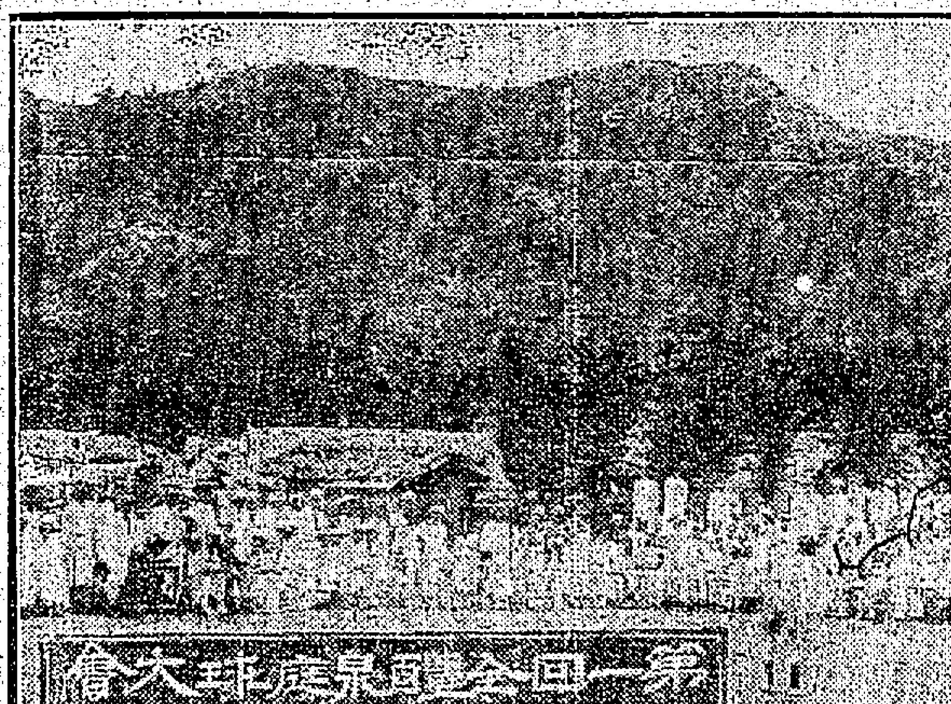
咸南의普通學校는目下五十四校中六月中開校한것이四校인데學級數三百九十九級으로前年보다十一學級이增加되고또新設校를合하면三十學級內外를增加할터이라는데職員數는朝鮮人三百一

日人이寄附

慶南晨橋市日本人永山荒五郎氏는自己所有土地三百餘坪이晨橋驛前學校建築地로寄附하엿슴으로一般은稱頌한다고(晨橋)

淸州婦人見學
豫想外의盛況

旣報한朝鮮東亞兩新聞淸州支局主催의婦人社會見學團은豫定대로지난九日에大盛況으로맛치엿다는바少의婦人들은出發定刻인午前十時外지에豫想以外의大盛員을일우어定員보담四十餘名을超過한百四十名員이各々赤色團員證을옷깃에부치고最初郡廳을向하야豫히準備해노흔休憩所에서茶菓의



第一回全鮮庭球大會

學窓散話
疑雨集

하이한녀름날볏은 날김업시빗나며 더위는 날마다더하여지니 避暑갈만한身勢도못되는몸으로는 窓이나열려놋코 몬지인지冊장에서 詩集이나 쓰집어내여 이곳저곳뒤에빨아 읽는것도 一日消遣거리는될것아다 쉬오하나마 이것으로서 스사로慰安을 삼을수밧게업다

東西의詩歌를比較하면 西洋의詩歌는 머리로 쓴것이요 東洋의것은 맘으로쓴것이다 이意味로 西洋에는純情詩歌가 등을어 대개로보아 情詩에도 理智의날카롭은맛이잇스니이것을엇지하랴

◇곳이다르면 風俗이다르고 風俗이다르면 事物을보는法이다르니 하는님아 人生으며는 엇지할수업는일이요 또한할할수업는일이니 엇찔수업는일이다

不幸히東洋에 난탓으로東洋의詩歌를 읽으면 西洋의것보다 만흔興味를늣기게되야 아모리西洋것을 推賞하려하여도 그럿케彼得我意라고할만큼처음에서부터못와지 하나도 남기지아니하고感心할수가업스니 이것을罪라한다면 東洋에서난탓이라고할수밧게업다

◇西洋것만을 질거워하는 人士에게 中國詩를말하면 淸新枯淡을 말한것이안이면 豪壯磊落의氣魄을보인것으로 하다드人生胸中의秘密뜻을 말한것이업다고하는것이普通이다만은明人王次回의疑雨集이란것을읽은사람으로는 그形式이端麗하고 辭句가穠婉하며感情의病的임을 니즐수업슬것이다 近代詩壇의첫길을열엇다할만한 佛國惡魔派詩人『보드레르』의詩를읽고 情癡怖恨追悔悽惻을 늣긴다하면 王次回의疑雨集四卷은 가장이것을 東洋式으로알녀주니 쓸데업시西洋것만을 崇拜할必要도 업슬것이다 아마中國詩歌中에 그內容이肉體的일것은업서『보드레르』의惡之花詩集中에 横溢하는 倦怠와衰弱의美感은 疑雨集의特色이다

◇疑雨集에서 몃篇을紹介하면 歲暮客懷라고題한것에『無父無妻百病身 孤舟風雪阻銅墩 殘冬欲盡歸猶嬾 料是無人望倚門』

엇던가 또强歡이란詩題에는『悲來强聽强爲歡 不覺花前有淚彈 問世已知來嗳噯 逢人強發笑啼難 詩因苦哭狂何惜 酒果排愁病也拚 無限傷心倚棠樹 東南枝下獨盤桓』으로『보드레르』의倦怠懶頹의美感이그대로나타나지안앗는가

◇다시 悲遣이란것을보면『本爲無聊借酒澆 翻澆轉覺更無聊 不知悵望緣何事 但覺歡情日漸消』이고 그다음에 不寐이라는詩를보면『悲抱千端集夜深 同眠人已睡沈沈 夢中幽恨渾難說 都是愁人淚濕襟』으로 이런類의詩篇이如干만아니다 안해의病을위로하다가 죽은뒤에往時를도라보고悲嘆한情懷를 말함에이르러서는慘憺한情과凄婉한辭는鬼氣가가슴을 떠리는듯하이건婦病懷에『消渴寒骨亦消 玩冰聲玉總無憀 春來靈盡如泉淚 病肺除非引淚澆 前路無憑愛有誰 一心超向妙蓮臺 眼前香爾休悲戀 九品同生也一家』의다음에는『悼亡非爲愛緣牽 偏敬如賓近十年 疏調較多歡洽少 倍添今日淚綿綿 醉時感慨醒來悶 貧用病敎病欲眠 白日無聊更無暇 黃昏猶自誤雛前』으로 悼亡의情이 이에서더한것이 어데잇스며 感慨悽戀은 조곰도가즈이업지아니한가

鍾城에牛疫猖獗
農期에大頭痛

咸北鍾城郡三峰에는數日前부터牛疫이發生하야不過數日內에大牛五頭가죽고漸々猖獗하는形勢에잇스며鍾城邑에서도二頭가發生하엿슴으로關係當局에서는防疫에盡力中이며該地方의牛車交通은一切遮斷하고方今耕作中의農家에서는勿論一般住民에게밋치는影響도不少함으로該地方一般人士는憂慮中에잇다고(會寧)

棉花炭疽發生
被害가不少

平南各地棉作은近日에炭疽病이發生하야被害가不少하다는데萬一이보다더蔓延되면今年度棉作은大歉凶을免치못하겟다고(平壤)

各地運動消息

梧山市民運動
脚戲外에各種

京元線釋王寺驛前梧山市에서는陰五月端午를期하야當市場에다가各種運動及脚戲運動을開催하라는데各運動에對한優勝者에게는다음과가튼賞品을授與한다고(釋王寺)

一等 大牛一頭
二等 中牛一頭
三等 小牛一頭

全醴泉庭球
西便에서勝利

朝鮮東亞兩支局主催인全醴泉庭球大會는豫定과갓치去七日午前十時부터醴泉普通學校運動場東便코-트에서開催되엿는바四方으로모혀들어온觀客은滿場의盛況을成하엿스며定刻이되자黃柄瑞氏의開會로八十名選手를東西二隊로

光城脚戲運動

平北義州郡光城面에서는端午佳節을利用하야左記와如히脚力運動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隣近에서多數參加하기를希望한다고(新義州)

一、時日 陰五月五、六兩日
一、場所 光城面弼力洞(光城醫院後廣場)

平原市民運動
兩日間大盛況

平南平原市民運動會는旣報와如히去十五六兩日間平原運動場에서開하엿는데第一日은正午부터開會하고午前九時부터午後四時까지稀有의白熱戰을일우엇는데蹴球戰은同日午前九時부터始作되엿는데競技는다음과갓흔優勝者를내엿다고(永柔)

蹴球 永柔靑年團 永柔少年團
庭球 柳東鄕 盧炳熹(石岩)
마라손 李應初(石岩)

起工式協贊會

元山府上洞으로中里三洞까지亘한海岸埋築起工式을오는二十日各主組合楼前에서擧行하다함은旣報와갓거니와此에對하야지난八日下午八時부터本報支局樓上에서元山有志及各團體代表數十人이모여海面埋立起工式協贊會를組織하고當日에擧行할種々의協議가잇슨後任員을選定한바氏名은左와갓다고(元山)

會長李澤鉉 副會長安廷協 總務趙鏞九、委員張□鈴外十九人

元山府時紀念

지난十日은時의紀念日임으로元山府에서는各關係官廳은勿論一般에게도時의紀念에依한여러가지時間勵行의宣傳을하고各主要官廳에서는鐘을치고自動車自轉車에多數押立하고樂隊를先頭로十時半을期하야府廳을

任員會의決議

忠南公州靑年修養會에서는定時總會에서새로選擧된新任員은去七日午後三時부터當地本會館內에서任員會를開하고事務를引繼하고各部의經過報告가잇슨바會務進行에對한事項은如左히決議하엿다고(公州)

一、該會에서經營하는勞働夜學을擴張하며充實히維持하기로
二、該會館을管理하고夜學의事務를執行하든館長이辭任하엿슴으로館長은宣傳部長으로決定
三、該會의主催와東亞日報支局後援으로南鮮少年蹴球大會를運動部에一任하야開催의件
四、咨務部에서會費를收聚의件

地方短評

◇海州 警察署에서는狂犬病豫防이라하야 개를함부로때려잡는데 面更面에는家々를訪問하야 개를감추라고官便을한다고 누가올흔가?

◇稷山 救饑會分配委員이面山面所에出張할때곳面長尹某에게周旋을囑托하엿슴으로不拘하고不聞에附한外에豫定日을履行하엿다고제배는품은혁안인외가라지겟지!『忠良한功一等面長』의 聞銜을씌울터이지!

◇安邊 咸南道參與官李君은安邊郡廳各面長會議席上에서郡職員과面所職員들에게洋服하기를强勸하엿다고 洋服店의手當은 얼마식이나밧는가

◎天氣豫報
曇雨模樣
福岡 昨日正午 昨日最高 昨日正午

龍角散
本劑는香味佳良하고少量으로도奏效顯著한咽喉의保健藥
목이쉬고、숨이차고、가래가나오게되면龍角散을복용하시오
本舖 東京神田 藤井得三郎
全國各藥房에이소

安心되는 痰咳 喘息의特效藥

印刷物이면 三南印刷所는諸般設備完全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九番地
漢城醫院
電話光化門四六六番
入院隨意

最新式 엑쓰光線設置
百濟病院
釜山府草梁 電話一六七
◇入院隨意◇ 釜山鎭分院 ◎ 大新洞分院

ルフシキオ
上用的 療粧庭 醫化家
三共株式會社 東京市

蚊帳 모기장
▲各種모기장을廉價提供
實光號

丁子屋特製
아루빳카와白쓰봉
丁子屋洋服店

健胃固腸丸
泄瀉止
奏效無比의
谷回春堂

鮮銀整理는 一分減配
減資는 實現되지아니할듯

鮮銀營業成績이 良好치못함으로 今期는 徹底的으로 整理하야 그 結果 減資減配가 된다고 하나 大藏省은 同樣意味로 今期減配는 斷行할지라도 減資까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바 卽 減配理由는 今期 朝鮮同行이 高田商會破綻으로 밧은 損害도 만코 또 滿鮮財界不振은 同行이 中央銀行인 關係上 同地方의 諸銀行에 對하야 貸付金利를 徹底的으로 引下한 關係는 自然히 今期利益率도 減少한다는 것이니 減資는 株主 側에서 (一) 政府直接監督下에 잇는 鮮銀을 減資케 함에는 爲先 政府의 株持를 拋棄하고 政府監督責任의 結果 善意株主가 損失을 밧을 理由가 업다 (二) 鮮銀利率을 增加하야 信用의 度를 增大하고 固定貸付를 整理함에는 他方法이 잇다 하야 反對함으로 當局도 此氣勢를 看破한 바 勿論 今後도 同樣의 理由로 減資는 實現치 아니할 것인 바 減配率은 今月末이 아니면 判明치 아니할 것이나 一分減의 五分配當이 될 것이라더라(東京電)

今年米價는
昂騰할 傾向

最近의 鮮米輸移出狀況을 보고 朝鮮內米市勢前途를 매우 重要視하는 바 卽 임의 三百六七十萬石의 輸移出이 잇슴으로 不遠에 四百萬石突破를 豫想할 수가 잇고 早炎減收에 依한 農家所持乃至 端境期의 觀察로 打算하야 마 今年은 近者稀見의 暴騰을 招致할는지 알 수가 업다 卽 米市近上 仁川期米市勢는 逐日漸騰의 氣勢로 昨年의 最高市勢 六月八日 三十四圓七十二錢에 對하야 今年은 임의 七圓六十六錢의 高價로 卅八圓三十八錢의 新記錄을 作하엿스며 小賣市勢도 前月最高 四十二圓에서 四十四圓에 猛騰하야 昨年同期보다 一圓二十錢의 高價이다 그러나 昨年의 最高市勢 八月中旬의 四十五圓五十錢에 比較하면 一圓五十錢의 低價인 바 今月末 或은 七月初旬에는 此以上으로 暴騰될는지 알 수 업고 또 今月中旬頃은 新麥出廻임으로 多少下落할 듯한 바 此는 粟의 不足을 補充할 程度일 것으로 米價의 大勢에는 큰 影響이 업슬 것이오 新米出廻期까지의 米價는 近年中 前例업는 高價를 出現하리라더라

龍口正隆合併
日銀에서 融資

日銀은 大藏大臣의 命令的勸告를 容認하야 滿洲龍口銀行과 正隆銀行의 合倂條件으로 五百萬圓을 融通하기로 內定하엿다더라(東京電)

鑛業界
休業狀態

◇鉛鑛=鎭南浦久原製錬所는 今月一日부터 操業을 開始할려이엿스나 準備의 形便上 十五日까지 延期하기로 하엿고 또 製錬도 多少遲延하게 되엿다 한다 不日開始하게 되면 平壤附近의 鑛山은 一齊히 非常히 活況을 呈할 것으로 特히 最近 鉛의 昻騰과 相伴하야 相當한 成績을 得할 모양이다

◇金銀鑛=金도 外國爲替의 關係上 六圓以下로 低落하엿스나 큰 影響이 업시 着々計劃又는 開始가 增加하야 成歡의 稷山金山은 從來 外人의 經營이든 것이 最近 日本資本家가 外人과 妥協이 成立하야 前代議士 樋渡氏가 經營하기로 되야 新界의 前途도 多少活氣를 呈케 되엿다

◇石炭=最近 工業界不振의 結果 市價低落하야 採算不引合하기 때문에 鮮炭도 매우 不振하든 것이 多少間 安定의 緖에 達하자 城津炭은 三井이 後援하고 會寧炭은 北陸汽船社長 石原正太郞氏의 出資로 會社組織을 改革하야 着々 計劃中이고 其他 明川、吉州炭에 對하야도 日本資本家의 着目한 것이 만하야 目下 日本으로부터 技師가 來鮮하야 數個月以來 精査中이라 한다 이 方面의 計劃도 一兩年中에는 括目의 活氣를 呈할 듯하다

◇黑鉛=朝鮮의 諸鑛物인 黑鉛은 一度 同業組合이 成立될 듯하더니 各自의 利己的競爭으로 結局 流產이 되고 말앗다 그런데 今回 朝鮮의 原料로 日本의 需要에 應하야 輸出의 傾向이 有하야 將來는 매우 苦境을 免치 못할 것이다 價格低廉으로 于今까지 不振狀態로 今次 三菱의 兼二浦製鍊所는 銀山面의 鑛採掘에 從事하든 合으로 黃海道下聖面에 作業을 移하라고 朝鮮私鐵과 協定하야 黃海線을 同地까지 分岐하기로 한 것인데 八月中旬에는 此完成을 見할 豫定이다

◇[illegible]=外國爲替의 關係上 鉛의 市價가 好轉하기 때문에 鑛不需要가 增加되야 朝鮮서도 近來相當한 多量이 日本移出이 잇다더라

日本上旬貿易
入超千三百八十萬圓

六月上旬 輸出高는 六千四百六十九萬圓, 輸入七千八百五十八萬圓, 差引 千三百八十八萬九千圓의 入超이라고(東京電)

仁取移轉側意見區々
暗々裡에 依然活動

仁川側의 仁取移轉反對委員은 總府에 對하야 反對運動을 露骨的으로 開始하엿스나 京城側移轉期成會는 表面은 傍觀하는 모양이나 實은 裏面으로 移轉決議以來 暗々裡에 活動을 繼續하는 모양인 바 委員中에 急進派와 溫和派가 잇서 아즉 一致치 아니한 까닭으로 오히려 不慮의 支障이 생길 念慮가 잇서 委員會를 열고 此對策을 講究케 되엿다더라

十三年度 雜穀實收
거의收穫減少

十三年度雜穀作을 調査하면 그 氣象狀態는 播種當時에 全道가 大槪 順調하엿스나 그後 中部以南地方에는 七月下旬의 降雨가 업서 乾燥된 結果 一時旱炎을 念慮하엿스나 七月下旬의 降雨로 恢復되엿다 그러나 그後 全道가 다시 稀有한 旱天이 持續되야 各道가 各種作物이 모다 旱魃의 影響을 밧은 바 더욱 粟, 黍, 蜀黍, 玉蜀黍, 燕麥은 모다 前年보다 그 收穫高가 減少하고 蕎麥은 前年보다 作付增加의 結果 그 收穫高가 增加한 바 그 收穫高는 아래와 갓더라

▲粟五,〇七七,六五七石 ▲稗八〇八,七〇四石 ▲黍九八,〇四四石 ▲蜀黍六八三,〇七四石 ▲玉蜀黍四九五,六二三石 ▲燕麥七八三,二四四石 ▲蕎麥五三七,〇三〇石

商議會頭는
改選期에決定?

京城商業會議所의 後任會頭問題에 關한 評議員會는 十日午後二時부터 同所會議室에서 열고 趙鎭泰, 有賀光豊, 寺尾光三郞, 增田三穗, 藤田安之進, 梁在昶, 林當, 高橋章之助, 西崎源太郞, 藤田米三郞, 佐藤半次郞, 佐野謙藏, 白石巖, 富野繁市, 直木倫太郞, 田川常次郞, 近藤謙吉, 陣內茂吉, 古城龜三助, 白虎熊諸氏가 出席한 後 懇議的으로 協議하엿는데 現在 評議員中에서 選擧함이 當然하고 他處人物은 不可하나 外部의 候補者는 問題가 되지 안코 荒井初太郞氏說도 果竟 問題가 되지 아니하엿스나 十二月改選期까지는 現狀대로 副會頭가 代行하면 別로 支障이 업슬 것이라 함이 大多數의 意嚮이나 此亦 正式으로 決定한 것이 아니오 二十日後 다시 評議員會를 열고 正式으로 決定한다는데 아마 現狀대로 十二月改選期에야 決定될 모양이라더라

新潟各地賣買

◇慶北尙州 九日=六月八日 牛繭 十貫匁에 對하야 白繭交雜種 最高 百四十圓, 最低八十八圓 賣買 百十八圓으로 總數量一千二百三十貫

◇慶北安東 十日=六月十日 牛繭 十貫匁에 對하야 白繭交雜種 [illegible]

奉信減資
四分一決定

奉信은 今月四日 新舊役員初會議에서 同社整理問題에 對하야 다시 滿鐵과 關東廳과 交涉하기로 決하고 市川社長, 山田三平, 川口精一 三重役을 代表하야 여러가지로 折衝한 結果

(一) 關東廳은 取引特許稅(手數料收入의 二割)를 十五萬圓에 達하기까지 免除할 일

(二) 滿鐵은 旣者融通한 廿八萬圓의 返還을 請求치 아니할 일

을 條件으로 四分의 一을 減資하기로 決定하고 七月上旬 臨時總會를 開催한다는데 雙方에서 都合 二十二萬圓의 無償出資를 承諾케 한 것은 新重役의 成功이며 尙且 滿鐵에 對하야 또다시 持株 三萬五千株를 拋棄하거나 或은 十個年間 配當을 辭退하도록 交涉하기로 하엿더라

京城通關貿易

五月中 京城稅關에서 取扱한 對外輸出入貿易額은 輸出 四萬二千二百二十四圓 輸入 五十六萬二千三百二十三萬二千百九十八圓으로 一月以後累計는 輸出三百七十七萬六千六百五十五圓 輸入 二十八萬八千六百八十六圓이 增加되엿더라

法時勢低落
佛財政長官聲明

佛國財務政長官 「카이요」氏는 閣議에서 前閣員에 對하야 新豫算中에는 嚴格히 新稅目을 要求치 아니하기를 希望하고 또 財政整理案은 「一九二五年度豫算中에 包含케 아니한 것이며 該案은 本月末에 提出하겟다」 한 此聲明의 結果 法의 爲替時勢는 顯著히 低落하엿다고(巴里九日發)

公設市場賣上高

五月中 京城府內公設市場賣上高는 明治町市場 二萬三千二百八十三圓四十七錢 花園町 二萬二千四百八十六圓 ... 圓八十一錢 錦町一萬五千八百四十七錢 龍山 一萬五千六百五十四圓二十九錢 合計 七萬一千六百十九錢으로 前年同月보다 明治町 千四百四十八錢 花園町 五千二百七圓三十七錢 龍山 千二百四十二圓으로 모다 增加하고 差引 一萬八百三十四圓九十九錢이 增加하엿더라

◇輸出=牛肉◇輸入=粟豆類毛織物支那麻布木材豆粕

京城商業會議所의 後任會頭問題 增加한 바 主要品은 아래와 갓다

◎朝鮮銀行券 十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株式 京取 十一日
前場薄商

▲京取六十錢高 ▲鐘新六十錢低 ▲大新五十錢低

京取稍反騰

前後場에 二十圓關門制內迫의 二十圓低價까지 잇섯든 바 今朝에는 二十錢高인 二十圓三十錢付價로 依然可觀의 人氣가 업시 그 商內는 波々하엿스나 京取反役間의 振興策考慮라는 材料로 多少人氣를 刺戟하야 漸次反騰의 勢로 六十錢高까지 出現하엿스며 新田, 南, 吉見에 洪股社, 成浦, 田中 賀의 百三十枚가 잇섯다

米棉波瀾追隨와 依然入超의 軟氣

今朝에는 米棉一圓低로 連日波瀾味의 商勢를 呈하야 一般人氣는 此에 追隨하는 步調이나 氣迷의 傾向이 만코 上旬貿易에 對하야 出超란 人氣가 有力하엿스나 도라혀 一千萬圓臺의 入超를 依然繼續함으로 綿絲도 軟調를 示하야 鐘新은 百二十圓關門制의 百十九圓八十錢阪付軟保인 百二十圓關門價保後阪步는 股落의 觀을 呈하야 一百二十圓臺의 不動大引으로 吉見, 南, 定岡에 大林, 洪股社, 成浦, 新田 賀의 百六十枚가 잇섯다

株式片片錄

◇…京取反役들은 너무도 業績이 不振하닛가 또 엇더케 振興策을 講究하라고 매우 애를 쓴다 하나 振興策이란 소리는 잘 듯는 한다 만은 한번 신통한 振興策은 보지 못한 까닭으로 미덤성이 적은걸

◇…日本貿易에 對하야 一般은 入超가 漸減할터라 出超되 好現像을 呈하리라는 期待가 오래전부터 잇섯스나 入超가 一千萬圓臺以內를 維持되야 出超에 接近하는 勢를 보다가 다시 一擧에 一千萬圓臺를 突破하니 株界의 親密들은 목줄기 떠러질 만한걸

大新二圓臺割

今朝米棉, 綿絲低와 上旬貿易入超의 歡材料로 大新은 二屆軟勢를 促進하야 二圓臺割의 八十一圓九十錢阪付를 따라 當付도 二圓臺割의 八十一圓七十錢後阪步도 軟合의 波瀾의 觀을 呈하야 當地는 漸軟의 勢를 示하고 阪地一圓七十錢으로 白樂三, 當止는 一圓五十錢으로 白樂三, 定岡, 大林, 賀에 白井, 田中, 成淸, 新田 賀의 百九十枚가 잇섯다

後場稍硬

前場諸株步調

▲京取=二〇,三〇, 二〇 ▲鐘新=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大新=八一,七〇, 八一,七〇, 八一,七〇

京取依然不動

▲京取保價 ▲安取保價 ▲鐘新七十錢高 ▲大新二十錢高

今場에는 大新鐘新은 稍硬化의 勢를 示하엿스나 大新은 引際反軟味

大阪短期氣配

◇鐘新百廿圓卅錢 ◇大新不變

後場諸株步調

▲京取=二〇,二〇, 二〇 ▲安取=一七,〇〇 ▲鐘新=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大新=八一,七〇, 八一,五〇, 八一,七〇

를뫼고 京取는 二十圓六十錢에 釘付의 觀으로 堅固는 依然薄商을 持續하엿다

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二〇・三〇 二〇・三〇	二〇・六〇
鐘新	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一二〇・七〇
大新	八一・七〇 八一・七〇	八一・七〇

米綿 一圓低 / 印綿 | / 英米爲替 四弗八六仙七分一 (八分一低)

大阪長期 十一日

賣買成立高 短期 七百六十枚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鐘新	二四〇・三〇	二四〇・一〇	二四〇・三〇
同新	二一九・一〇	二一九・〇〇	二一九・四〇
大株	一六五・三〇	一六五・三〇	一六五・八〇
同新	八二・七〇	八二・五〇	八二・三〇
郵船	六九・七〇	六九・五〇	六九・七〇
同新	三四・〇〇		
商船			
同新	二二・四〇		
日糖	一〇二・一〇		一〇二・七〇
東新	一四六・〇〇		一四六・〇〇

大阪短期 十一日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大新	八一・七〇	八一・七〇	八一・七〇
鐘新	一一九・八〇	一二〇・〇〇	一二〇・四〇

期米 仁川 十一日
前場高騰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八・六一	三八・八六
二節	―	三八・五二	三八・八二
三節	―	―	三八・八四
四節	―	―	三八・八六
五節	―	三八・五二	三八・八二
六節	―	―	三八・八四
七節	―	―	三八・八二
八節	―	三八・六四	三八・八二
九節	―	三八・六五	三八・八四
十節	―	三八・七〇	三八・八六
前止	三八・〇〇	―	三八・七六

昨後場은 三十八圓六十五錢에 强便히 止하엿더니 今朝 阪地初付에 四丁高의 報를 接하야 新高 四十二圓二〇錢을 報함으로 買氣漸漸하야 三十八圓八十六錢에 付한 後 阪地가 다시 四十一圓九十錢의 小刻함으로 當地도 二三丁安의 八十二錢에 反落하니 一般에 買氣가 衰하고 小刻에 止하엿다

後場軟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八・七〇	三九・〇〇
二節	―	三八・七〇	三九・〇〇
三節	―	三八・六〇	三八・九〇
四節	―	―	三八・九〇
五節	―	―	三八・九〇

大阪期米氣配

◇先限四十二圓

	當限	中限	先限
六節	―	―	三八・九二
七節	―	―	三八・九一
前止	―	―	三八・九五

取組高(單位石) 當 二〇〇〇 中 一四〇〇〇 先 一三二〇〇

帳入價格 當 三八〇〇 中 三八五〇 先 三九二〇

賣買高 當 四〇〇 中 三二〇〇 先 七〇〇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三一八六〇〇

阪地變鞘와 強弱考察

爾來阪地의 步調는 恒常先限이 高하고 期近이 低하야 順鞘로 되여 오던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將來는 高하는 觀念의 所使이엿다 그러한데 日來에 其形勢는 顚倒되야 期近이 高하고 先限이 低케 되엿스니 이것은 新米以來 稀有의 現象이다 當時의 理想이던 將來高가 實現하야 順鞘는 사고 逆鞘는 팔나는 機外의 格言도 잇거니와 이 變鞘의 關係는 엿슴으로 將次는 더 오를 餘地가 업다는 것을 隱然히 告白함이 안일가 次吸氣가 오라면 非常期變化하는 그 동안이 特別히 寄與를 感케 하는 것과 同樣으로 昨今 騰高가 其大體의 實勢가 轉換되는 前提인지도 모른다고 엇던 老練한 定期通은 말하더라

天井은 那邊

連日低迷保合을 反復하던 阪仁步調는 ... 當地도 意外로 白米 行이 良好함으로 買氣가 俄然活躍하야 新高價를 反撥하야 正米가 依然稀薄하야 白米行이 良好함으로 買氣 擡頭하야 又復 二十錢高를 呈하엿더라 하는 곳이 잇다 하면 그것이 天井이 되라 나오더라

正米二十錢高

期米가 俄然活躍하야 新高價를 反撥하며 産地의 出廻가 依然稀薄하야 白米行이 良好함으로 買氣擡頭하야 又復二十錢高를 呈하엿더라

五月限受渡格付表

銘柄等級	受渡石數	格付
㊀	一,四五二	一〇八 一,六〇下
㊁	一,四四〇	六五 一,五八 下
㊂	一,九〇二	六〇 一,五六 下
㊃	一,三三一	五五 一,五二 下
㊄	一,六〇一	四〇 一,四〇 下
㊅	一,二〇〇	一,〇〇 下
計	九,九二六	

各地期米 十一日

	付價	前場 止價	後場 止價
兵庫	四二・〇五	四二・〇〇	四二・〇〇
下關	四二・二〇	四二・一二	四二・〇〇
桑名	四二・八〇	四二・〇〇	四二・六五

大阪期米 十一日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四二・一〇	四二・〇七	四二・〇二
二節	四二・〇七	四二・〇二	四一・九七
三節	四二・〇五	四二・〇二	四一・九七
四節	四二・〇七	四二・〇三	四一・九八
五節	四二・〇七	四二・〇三	四一・九七
六節	四二・〇五	四二・〇〇	四一・九六
七節	四二・〇七	四二・〇〇	四一・九五
八節	四二・〇五	四二・〇〇	四一・九五
九節	四二・〇〇	四一・九六	四一・九二
十節	四一・九八	四一・九五	四一・九二
後場一節	四二・一〇	四二・〇七	四二・〇五
二節			
三節			
四節			
五節	四二・〇〇	四二・〇〇	四二・〇〇
六節	四二・一〇	四二・〇七	四二・〇〇

米豆餘墨

日下米價가 世上景氣에 比하야 特高하야 吾人生活을 威脅하는 點으로 보든지 또 先月來 一般米穀이 더욱 白衣米豆穀이 만히 貿付한 點으로 보든지 低落이 잇서야 만할 것인데 昨日이 갈사록 漸々高騰하여 가는 人力으로 엇지 할 수 업다 ▲그러하나 오르는 것도 限이 잇겟지 當初低價에서 부터 보면 엿다 하는 곳이 잇다 하면 그것은 警戒하야 用하는 것만은 찬성한다 ▲그런데 漸々 오르기는 하면서도 人氣는 恒常軟味가 잇서서 熱狂的 騰을 보지 아니하니 그것이 騰落의 餘地가 남어잇는 듯한 感이 不無

當初調節되며 감으로 特히 排下할 必要가 업다 하야 排下은 아니한다 고 聲明하엿스나 그동안 排下를 期待하던 人氣가 一掃되는 同時에 良質의 買進에 依하야 買方의 乘勢에 因한 것도 될 수 잇스니 그리할 뿐 아니라 寶勢가 期頭의 前途가 多望하다고 할 수 잇다 그러하면 天井은 那邊에 잇고 이 ... 를 意한 中 多日의 保合을 보지 못하엿스니 아즉도 當分間은 排下할 必要가 업다 하는 ... 調는 依然上分岐되야 阪地는 四十二圓을 突破하엿스며 當地는 三十九圓을 內迫하엿다 이와 가튼 高騰의 原因은 무엇일가 市場의 觀測은 자못 區々하야 其前月을 捕捉키 어려우나 要컨대 五月限 受渡의 成行이 良好하다는 說이 一般來場자는 그리하야 其排下의 說이 발서부터 떠돌아 一般은 其排下를 目標로 하야 賣付한 사람도 적지 아니한 바 또 排下의 成行을 보려 하는 곳에서 買進하려 하는 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잇고 조금 傍觀하고 잇던 것이 日來의 非調下 欲伸하던 强한 氣勢를 示하던 것인 바 局에서는 現下의 價格과 數量이 ...

流浪人의 노래

金東仁 作

【三二】

몸과 마음이 어린아희와 가치 쇠약하여 커서 나는 무의식상태에 드러갓섯다 그쌔는 아츰이엇섯다 열려잇는 문으로는 약한 바람이 상쾌히 드러온다 하늘에는 분홍빗츨 씐 조고만 구름쌍들이 약한 바람에 불녀서 서편으로 다라난다

「금빗손(金色手)이다」 나는 몹시 즁얼거렷다 즉 원간아페서 지금 그와 가튼 모양의 구름쌍을 바라보며 노래하든 어린 쇠명이가 나타나며 동시에 윤서방과 쇠명이에 대한 모든 일이 머리에 떠올랏다 이 혼미상태에 들기 전에 어머님과 약이한 그 한마듸가 되지다 생각낫다 그러나 내가 그러케 알고시퍼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은 엇지 되엿나 나는 혼미상태에 드러서 몃날이나 되엿나

나는 어머님을 차저첫다 즉 커텐 모통이에 안저잇든 간호부가 나와서 어머님을 불러왓다

「어머님 가보섯슴잇가?」

「응」 어머님은 간호부를 내여보낸 뒤에 대답하엿다

「바로 되엿슴잇가」

「아모일도 업더라 엇더튼 네가 한 그 무서운 이약이는 사실은 사실이더라 분묘는 발굴되고…… 일병의 헛소리는 아니더라」

「좌우간 해변에 가보섯슴잇가? 그러고 물나기를 기다려섯슴잇가?」

「응 기다렷다」

「그래 보섯슴잇가?」

「아모것도 못보앗다 시테는 안나오더라」

「그다음날도 가섯슴잇가?」

「응」

「보섯슴잇가?」

「못보앗다」

「좌우간 메칠이나 지낫슴잇가 내가 정신업시 며칠이나――」

「닐헤」

「그러고 그――안나와요?」

「아모것도 안나오더라 아마 기피 영구히 무친게지 나는 그뒤에는 안가보앗다」

「웨 안가셧세요? 웨 매일 송장이 나오도록 매일 안가세요? 어머님께서 마즈막으로 가보신 이튿날 송장이 나왓스면 엇젭닛가」

「너허고 약속한 대로는 다 실행한셈이다」

나는 잠잠하엿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서워하는 다만 한사람인 어머님과 싸흠 준비를 하면서……

「나는 약속을 지켯다 너의 아버지에게 대한 의무이상으로 너때문에 월혓다」

「그러나 어머님! 어머님은 약속을 다 안지키섯습니다 설명이 그것을 발견할 뒤험을 다 메밧치 못하엿습니다 이제라도 설명이는 그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오잇가」

「그런일은 업스리라 나는 네 약속을 직혓스니 이제 네 약속도 직혀야 한다」

「어머님은 설명이가 죽을 때보다도 무서운 미치광이가 될 테더한 그 때 밤에 온갓 수단을 다 쓰시지 안으셧서요 그러면 약속은 왜 여진셈이에요 그러니 커도 약속을 직힐 의무가 업습니다」

「그것은 한낫 핑게에 지나지 못한다 네가 명(家名)을 더럽히는 핑게에」

「아니외다 어머님은 약속을 안 직히섯스니가 커도 약속을 안 직힙니다 어머님은 설명이를 구할 최상의 수단을 안쓰섯슴니다 어머님의 약속은 설명이를 위한 구명칙이에 자아너의 안는 것이 아님잇가 어머님 드르세요」 나는 미친듯이 부르지젓다 「게 가서 약해서 그러엿이 업든 그 수스라티는 째에 어머님은 거반한 모양이 녀게 보이도록 무자비(無慈悲)하시지 안엇습닛가 관찰딘이 는케 키로 삼겟습니다 무덤속에 드러간 리씨가 분이 원통키 나와서 방해를 해도 계약해요 삼겟습니다 단 한니다」

「네아버지의 분묘를 파헤인자의 딸을?」

「네 그아버지의 분묘를 파헤인자의 딸을 사랑합니다」 나는 빈덕이리나 안즈며 아우것 소리랍을 머리를 숙으리게 한 그 어머님의 교만한 눈을 보면서 부르지젓다

質疑應答

一 質疑는 日常生活에 關係잇는 問題에 限함 一 [illegible]

【問】 甲의 番地가 內의 土地를 [illegible] 하야 水入口에 甲番은 存在하고 乙의 番은 甲의 番地便에 하야 甲의 洑水를 引水灌漑하는데 內의 地稅(洑稅)를 甲이 年々支拂하야 오는 中 昨年 洪水에 洑洞이 流失되여 수에 洑洞改築할려 하는데 乙이 洑稅를 不給하면 甲은 洑水를 不給할 수 잇는지 不然하면 洑水를 排給하고 水稅(洑稅)를 收捧하는 것시 公當할지 詳細히 至急 敎示하야주시요 (一讀生)

【答】 甲은 兩者中 選擇行使할 수 잇습니다

京城府公平洞四九 辯護士 金用茂氏談

廣告

運轉手養成 / 運轉手紹介

朝鮮自動車研究所

入學案內書 二錢郵券 封入申込次第送呈함

京城府岡崎町八番地 電話龍山 九〇二番

內服 淨化 / 精神 美化

毒掃丸

男女의 梅毒, 淋病, 胎毒, 痔疾, 皮膚病, 諸種의 毒病으로서 一日一名 一個月丸이라 服용

十日分 一圓・廿日分 二圓 / 卅五日分 三圓・百日分 八圓 / 送料 四十五錢

東京神田錦町 發賣元 山崎帝國堂

腦病良藥 健腦丸 KENNOGWAN

一週間 分을 試用하시요

主效 ▲頭痛 ▲眩暈 ▲神經衰弱 ▲不眠 ▲記憶力減退 ▲腦充血 ▲憂鬱 ▲健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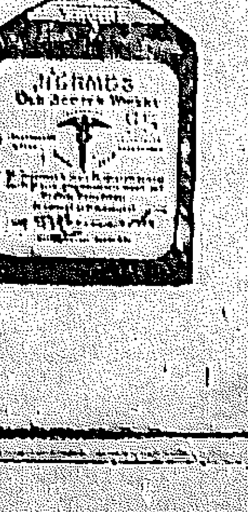
腦神經系統의 疾患에 卓效가 有한 良藥이외다

定價 [illegible] 全國各藥店에 잇소

本舖 大阪市 丹平商會藥房

木邦唯一의 精良品 삭구

[illegible]



헬메스 우이스키

ヘルメス ウヰスキー

누구시든지 맛이 조타구

綠綬褒章 御下賜

効力第一의…… 빈대잡는약

猪印のみどり粉

빈대는 勿論이오니, 벼룩가 쉽게 退治됩니다

大阪 製造 安住大藥房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高尙하고 美麗한 純無鉛

クラブ白粉

구라부 백분

◎大阪三品 十一日

件	前場 付價	前場 止價	後場 止價
六月	三三〇〇	三三六〇	[illegible]

◎橫濱生絲 十一日 前場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先限 一五九〇

勸農 六月末 七月中 七月末

	六月末	七月中	七月末
一節	三八・五〇	三八・〇〇	三八・四〇
二節	三八・七五	三八・〇〇	三八・五〇

大邱 賣買高 三・〇〇〇石

	六月末	七月中	七月末
一節	三八・四〇	―	三八・四〇
二節	―	三八・五〇	三八・四〇

群山 賣買高 二・五〇〇石

	六月末	七月中	七月末
一節	三八・六五	―	三八・六〇
二節	―	三八・五〇	三八・七〇

京城 賣買高 一・五〇〇石

㊀三節 三八・〇〇 ㊁四節 三八・二〇 ㊂同 三八・五〇

東京期米 十一日前場

一節	四三・〇〇	六節	四三・九九	
二節	四三・二五	七節	四三・九八	
三節	四三・二〇	八節	四三・六〇	
四節	四三・〇〇			